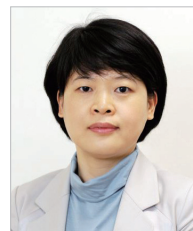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대사관 망명’ 1년



글. 이순녀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2012년 8월 19일,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발코니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AP Photo)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42)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스웨덴으로의 강제 송환을 피해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은신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어산지는 영국 대법원이 스웨덴 송환에 불복하는 자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자 지난해 6월 19일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이후 필자가 이 글을 쓰는 5월 말 현재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

어산지는 스웨덴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결국 미국에 인도돼 기밀문서를 공개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미 진영인 에콰도르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두 달 뒤인 8월 16일 어산지의 망명을 허용했다. 영국 정부는 에콰도르 대사관의 외교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으나 국내외의 비난 역풍만 불러

일으켰다.

어산지의 '대사관 망명' 생활이 1년이나 됐지만 해법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영국, 스웨덴, 에콰도르, 미국 등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인 국가가 4개국이나 되는 탓에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에콰도르 정부는 스웨덴 검찰이 런던 대사관으로 와서 어산지를 신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스웨덴은 이를 거부했다. 스웨덴 수사당국은 어산지에 대해 발부한 자국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영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영국은 어산지의 출국을 금지하고,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 밖으로 나오는 즉시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사관 주변에 경찰 병력을 24시간 대기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어산지가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을 벗어나 에콰도르로 향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산지가 이 같은 처지에 몰리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태어난 어산지는 10대 때부터 컴퓨터 해킹에 매료돼 동료들과 해커 그룹을 결성해 활동했다. 20세 때인 1991년 호주연방경찰에 체포된 그는 20여 건의 해킹 혐의를 시인하고, 벌금을 낸 뒤 풀려났다. 체포 당시 그의 컴퓨터는 모뎀을 통해 호주 대학과 캐나다 통신사, 각종 기관 등에 접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부터 프로그래머와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컴퓨터 전문가들을 위한 책을 쓰기도 한 어산지는 1999년에 처음으로 리크스(leaks.org) 도메인을 등록했지만 당시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2003년~2006년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 등을 공부한 어산지는 2006년 정부의 위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자

는 취지로 내부 고발자들을 위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아이슬란드에 설립했다. 메인 서버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보장된 스웨덴에 뒀다.

위키리크스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것은 2010년 4월, 미군 아파치 헬기가 2007년 이라크전에서 로이터(Reuters) 기자 2명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당시 어산지는 아이슬란드의 한 주택에서 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각국 매체들을 통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위키리크스는 7월에는 아프가니스탄전 기밀문서, 10월에는 이라크전 비밀 자료를 공개했고 11월 말 25만 건의 국무부 외교 문건을 폭로함으로써 미국 정부에 핵폭탄급 충격을 안겼다. 국무부 외교 문건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세계적인 현안은 물론 각국 지도자에 대한 평가와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관리들에 대한 사실상의 스파이 활동 지시 등 크고 작은 정보들이 모두 망라돼 있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전을 벌이는 와중에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졌다. 어산지가 8월 13일 세미나 참석차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발생한 일이 발단이 됐다. 어산지는 현지에서 2명의 20대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들로부터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스웨덴 검찰은 11월 18일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인터폴은 이에 근거해 어산지를 체포하라는 적색경보를 회원국들에 내렸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검찰이 당초 어산지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자체적으로 기각한 뒤 다시 제기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적을 피해 영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어산지는 12월 7일 영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어산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미 당국이 나라를 국가기밀 누설죄로 투옥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

라고 주장했다.



어산지가 인터폴 수배명단에 올려져 있다.
(출처 : The Daily Mail)

어산지는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12월 16일 지인들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스웨덴 송환에 맞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는 540여 일간 보석 상태로 영국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2년 5월 30일 영국 대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어산지의 스웨덴 송환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재심을 요청했다. 대법원이 6월 14일 이마저 기각하자 어산지는 보석 규정을 어기고 노퍽 주의 주거지를 벗어나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2010년 12월 7일 체포된 어산지(출처 : The Daily Mail)

어산지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에콰도르를 망명지로 택하고, 또 에콰도르가 이를 허용한 이유는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남미 반미 그룹에 속한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어산지와 손을 잡을 경우 얻게 될 정치·외교적 이득을 노렸다. 대통령 3선을 앞두고 반미 좌파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언론 자유’와 ‘피의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나라라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으려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다. 코레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어산지가 진행하는 러시아 국영방송의 토크쇼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을 때 물밑 협상을 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돌았다.

어산지 역시 영국이 돌아선 마당에 모국인 호주 또한 자신을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 아래 반미 노선을 공유한 에콰도르로 발길을 돌렸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망명 신청 당시 에콰도르 대사관은 어산지가 코레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박해받고 있으며 호주도 정치범인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어산지 카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몰라도 지난 2월 3선에 성공한 코레아 대통령은 대선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산지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시급한 외교적 문제”라며 “그의 운명은 유럽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어산지는 대사관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다. 그는 이 기간에 딱 두 번 대중과 만났다. 에콰도르 정부가 망명 허용을 발표한 지 3일 뒤인 8월 19일 대사관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어산지는 수백 명의 지지자 앞에서 미국에 위키리크스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바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12월 20일 한 차례 더 대사관 발코니

에 등재해 지지를 호소하는 대중연설을 했다.

대사관 밖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어산지의 활동은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고, 팝스타 레이디 가가 같은 유명인의 방문을 받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때는 화상 연설을 통해 오바마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CNN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과 인터뷰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도 지난 2월 어산지를 인터뷰해 방송했다. 어산지는 “힘 있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게 탐사보도”라며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정보기관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아이슬란드에서 나를 도와주던 18세 소년을 납치했다가 풀어줬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어떤 형태의 중화기를 썼는지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보도자료에서 “어산지를 처음 숨겨준 조력자를 인터뷰하다가 어렵게 어산지와 연락이 닿았다”면서 “오랜 도피 생활로 건강이 무척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언론 ‘더 네이션(The Nation)’은 지난 5월 8일 어산지를 인터뷰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대사관 주변은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로 긴장감이 흘러넘쳤다. 대사관 건물 진입로부터 출입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경찰관들이 곳곳에 배치됐고, 어산지의 침실과 마주한 빌딩의 창문에서도 감시자가 목격됐다. 어산지의 통신 내용을 감청하기 위해 수많은 안테나를 장착하고 대사관 주변을 배회하는 경비 차량도 눈에 띄었다. 런던경찰국은 지난해 6월 19일부터 올 1월 말까지 대사관 주변 치안에 소요된 경비가 450만 달러(약 5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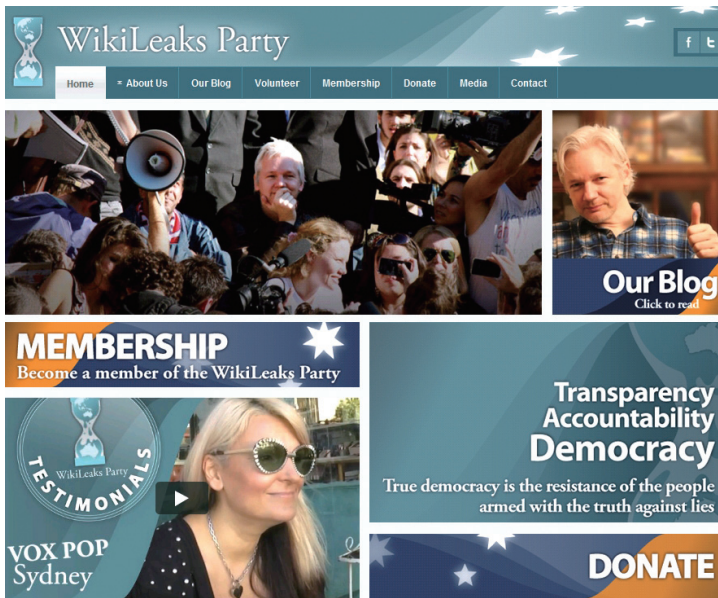
케이블과 컴퓨터 장치들로 어수선한 작업실에

서 에콰도르 전통 셔츠를 입고 인터뷰에 응한 어산지는 자연광을 쬌지 못한 탓에 창백한 얼굴빛이 었다. 그는 밤에 일하고, 오후에 잠을 잔다고 했다. 여러 대의 핸드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하루 17 시간씩 세계 각지의 지인들과 소통한다. 그는 모든 대화를 암호화하고, 종이 서류는 전부 파쇄한다고 말했다. 한쪽 벽에는 트레이닝이 놓여있다. 그는 매일 5~8km를 달린다고 했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유연성을 기르는 체조와 복싱을 배우기도 한다.

어산지는 요즘 이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호주 상원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한 뉴스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오는 9월 24일 실시되는 호주 총선에서 위키리크스당을 창당해 상원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원의원에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산지는 인터뷰에서 “의원에 당선되면 영국 정부도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정치적 교착 상태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법상 해외 거주 호주인도 출국한 지 3년 미만이고 6년 내 귀국할 의사가 있다면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어산지는 2010년 6월 출국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당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빅토리아 주에 3명의 후보를 출마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어산지는 빅토리아주 출마가 유력하다. 상원후보 등록은 8월 22일까지이며, 당선될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6년 임기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스웨덴에 송환될 경우 결국 미국으로 강제 송환돼 기밀 유출에 대한 보복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어산지의 주장은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미 정부는 “어산지가 스웨덴 송환의 진짜



호주의 위키리크스당 홈페이지

원인인 성범죄 의혹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의 폭로 이후 미 당국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묶아매기 위해 다각적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 며칠 전인 2010년 12월 1일 AP통신은 “미 법무부와 국방부, 국방부 소속 변호사들이 어산지를 포함한 위키리크스 운영자들을 간첩죄 혐의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첩죄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 중”이라며 “간첩죄가 어렵다면 국가재산 절도나 불법취득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어산지를 공적으로 몰아붙였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인 로버트 김스는 기자회견에서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유출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어산지를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다이안 페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은 “어산지와 그의 조력자들을 간첩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법을 고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합동 서한을 연방당국에 보냈다. 마이크 허커비 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위키리크스의 기밀문서 유출은 반역죄에 해당되며 어산지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FBI, 법무부, 군범죄 수사국 등 십수 개의 정부 기구

가 대대적으로 위키리크스 수사에 나섰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호주 외교 전문에 따르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에 대한 미 정부의 수사는 “규모와 성격 면에서 전례 없는 것”으로 묘사됐다. 위키리크스의 협력자와 지지자들은 시도때도없이 검문 검색을 당했고, 정보원으로 활동하라는 회유를 받았다. 위키리크스의 모든 후원 계좌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지난해 9월 5일, 어산지의 변호를 맡은 스페인의 인권판사 발타사르 가르손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비밀 대배심’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산지를 겨냥한 수사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며 “어산지가 미국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경험상 기소는 하루 만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르손 판사는 위키리크스에 미 외교 전문을 건네 준 혐의로 체포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자들의 진술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외교 문건을 위키리크스에 넘긴 브래들리 매닝
(Bradley Manning) 일병(출처 : The Telegraph)

이쯤에서 매닝 일병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위키리크스 기밀 문서 폭로의 또다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매닝 일병은 2010년 5월 26일 이라크 바그다드 현지 군부대에서 간첩법 위반 등 22개 혐의로 체포됐다. 해커인 아드리안 라모와 채팅을 하면서 “한 달 전에 폭로된 민간인 사살 영상은 물론 이라크 · 아프간전 일지와 국무부 외교 문건을 이미 위키리크스에 넘겼다”고 털어놓은 직후였다. 해킹 사건으로 FBI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라모는 FBI에 이를 신고했다. 매닝은 미 버지니아주 판티코 군 구치소에 수감됐고, 기소인정 절차에 부쳐졌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재판 지연으로 재판 절차는 3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다.

위키리크스나 어산지는 지금까지 정보제공자가 매닝임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매닝도 재판 전까지 혐의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월 28일 군사법정에서 매닝은 처음으로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위키리크스에 자료들을 넘기기 전에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폴리τικο(Politico) 같은 미국 언론들과 접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제시한 자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뉴욕타임

스는 자료 제공 의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로 생각되는 인물과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을 상대한 사람이 어산지 본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닝은 자신이 인정한 혐의만으로도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적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다.

어산지는 매닝의 사례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매닝의 행위를 일탈 행위로 매도하고,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정신이상자의 짓거리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에 분노했다. 어산지는 “그가 한 행동은 매우 드문 사건이다. 영웅적인 행동엔 반드시 명확한 의도가 있다. 언론은 그의 성 정체성을 까발리거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파헤치는 대신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산지는 대사관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지만 신념은 확고했다. 그는 위키리크스의 기밀 문서 폭로로 인해 미국 정부가 감추고자 했던, 즉 전쟁에 희생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에 자부심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 언론들이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한 전쟁 선동자로서의 가면을 벗겨냈다는 점도 가치 있는 일로 꼽았다.

하지만 어산지에 대한 여론은 극단으로 나뉘어 있다. 국가비밀을 폭로한 그에게 ‘언론자유’의 수호자라는 찬사와 ‘잘난척하는 범죄자’라는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대사관 망명 생활이 길어지면 서 그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어산지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영국 억만장자 언론인 제미마 칸은 지난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위키리크스가 진실 은폐와 왜곡 등 공격 목표로 삼았던 정치권력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산지가 모든 법과 비판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서 “어산지가 내부의 정당한 소통 요구를 거부하고 극단적인 헌신만을 강요하면 그동안 이룬 영웅적 평판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여했던 칸은 어산지가 비판적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데 실망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의 문서 폭로도 예전만큼 강한 파괴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4월 8일 1970년대 및 2000년대 미국의 외교·첩보활동에 관한 문서 195만 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이미 기밀이 해제된 자료들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전 폭로 때처럼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어산지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어산지는 지난 5월 18일 스페인 TV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가 모함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영국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 요원이 나눈 인터넷 메시지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9월에 이뤄진 첫 대화에서 요원은 다른 동료에게 어산지의 혐의가 정보기관에 의해 급조된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화에서 “그들이 성 관련 혐의로 어산지를 체포하려 한다. 완전히 덮어씌우기다. 외교문건 폭로 직후라 시기적으로 너무 표가 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본부측은 “공식적인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감청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속 직원의 대화 내용은 기관의 정책이나 공식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어산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스웨덴 피해 여성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들은 5월 22일 자국 정부에 어산지의 신속한 신병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언론에서 많은 영터리 억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정치적 음모로 봐서는 안된다”며 스웨덴 정부가 에콰도르를 압박해 어산지를 인도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산지를 고발한 성폭행 피해자 안나 아딘(Anna Ardin, 좌)과 소피아 윌렌(Sofia Wilen, 우) (출처 : The Sydney Morning Herald)

어산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은신할 지는 알 수 없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제니퍼 로빈슨 인권변호사는 5월 5일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은 더 머무를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어산지의 다른 변호인인 마이클 래트너는 “미국은 어산지가 대사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숨을 고르고 있다”고 더 네이션에 밝혔다. 그는 “워싱턴은 어산지의 송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복잡한 시국이 해결되면 어산지를 데려갈 것”이며 이를 위해 대배심에서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에 재개되는 매닝의 군사 재판은 어산지의 운

wikileaks

명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요원을 포함해 141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맞서 위키리크스와 일부 언론인들은 매닝의 군사 재판 과정을 공공사이트에 올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연방 법원에 냈다. 에콰도르 대사관은 지금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놓여있다.

